

보도자료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도일	2017년 3월 2일(목)		
배포일	2017. 3. 2.(목)	홍보담당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행사진행: 총무과	문의	총무과(880-5092)

2017학년도 입학식 개최

□ 서울대학교는 2017학년도 입학식을 2017년 3월 2일(목)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부 3,363명, 대학원 3,360명으로 총 6,723명이다.

□ 성낙인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오늘 이후 ‘서울대학교’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울수록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갈 것”이라며 “서울대학교라는 이름보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총장은 “이 순간부터 이곳이 ‘서울대학교’라는 것을 잊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겸손함과 열린 사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성을 기를 것”을 당부했다.

□ 독일 베를린자유대 Peter Andre Alt 총장(57)이 축사 연사로 초청되어 대학 생활의 중요성,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을 강조하며 서울대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 주요 식순

-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간호대 박세은), 입학식사(총장), 축사(베를린자유대 총장)

※ 붙임: 입학식사(총장), 축사(영문, 국문)

【붙임1: 총장 입학식사】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식사

서울대학교의 새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은 여러분의 고귀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하셔서 서울대학교 입학까지 이끌어 주신 학부모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모이신 학부모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신입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가족이 된 첫 날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이자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족이 되었다는 데 대하여 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오늘까지만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서울대학교’라는 단어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이것이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 그리고 졸업생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선배로서 서울대인이 된 첫 날 후배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항상 그렇게 살아 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와 함께 한 세월의 가르침 속에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울수록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 입학식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로 그치게 되고, 그 이후는 오늘보다 못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은 그간 정계·관계·재계를 아울러서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엘리트로 각계각층에서 활약하여 왔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난관과 역경을 헤쳐 나갈 지혜를 제시하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회자됩니다. 서울대인들을 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라는 단어를 머리에서 지우지 못한 서울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란 이름에 도취되면 오만함과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내 안에 생겨납니다. 출세를 위하여 편법을 동원하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인에 대하여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인재난에 허덕이던 시절에는 서울대인에게 일정부분 특권의식이 용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공부 잘 하는 인재는 우리 사회에서 넘쳐납니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학문적 우수성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좋아 서울대인이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머릿속에 자꾸만 각인한다면 지나친 자기 확신과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 이런 진영논리적 사고가 바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여 상처를 안겨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다는 자만과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도 중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모르는 리더는 모든 이를 불행하게 합니다.

‘서울대학교’란 이름보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 예산에서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국비로 지원된 훌륭한 교육여건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 못지않은 자격을 갖춘 누군가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지 못한 인재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십시오. 모든 이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

이제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 역량과 의지를 갖춘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란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善)한 인재’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성, 그리고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의 바탕 위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식인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때 지구촌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의 변화와 문화 동향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SNU in World Program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 사고, 단편적 지식을 극복하는 근본적 지성, 사익

을 뛰어넘는 공익정신으로 끊임없이 정진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서울대인’이란 이름으로 진정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대학교’를 잇고 살수록,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야만 평생 서울대학교의 명성에 기대어 사는 졸업생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명성을 만들어 내는 졸업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곳이 ‘서울대학교’라는 것을 잇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겸손함과 열린 사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성을 기르십시오.

이제 굳건한 선의지(善意志)를 다지며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고자 결심한 지금, 자랑스러운 ‘SNU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를 잇은 여러분들을 통해 서울대학교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상 속에 기억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선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드립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붙임2: 입학식 축사(영문)】

Dear Mr. President, Professor SUNG Nak-in,

Dear membe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ar students an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for inviting me to speak at this distinguished university and to take part in today's enrollment ceremony. This is a joyous occasion in several respects: First and foremost, we have gathered here today to celebrate your start into a new life - your life as a student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if not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of South Korea.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6,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strived to lead the nation with wisdom and courage every step of the way towards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Today,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gained a global reputation for academic excellence, joining the ranks of prestigious universities across the world.

Similar to President SUNG Nak-in today, I attend the enrollment ceremoni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as its President. And similar to the students attending the enrollment ceremonies at my home institution, I see the same array of feelings such as hope and excitement and maybe also a little fear mirrored in your faces. University life is one of the most formative periods of one's life. In the following weeks you will immerse yourself into Seoul National University's academic environment. You will attend lectures and seminars at SNU's many different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You might be given the chance to be directly involved in the scientific research done at one of SNU's research centers. Of course, you will also meet a lot of new friends that might accompany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You might even make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during a stay at one of SNU's many international partner universities. For example, at the Freie Universität in Berlin. Which leads me to my next point.

This morning is also a joyous occasion in regards to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and Berlin in particular, has a very specific history of division and reun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 history that is still very much present. Freie Universität played a very significant role in this history and thus, as its President, I would like to say just a few words to introduce Freie Universität to you today. As you will see, this institution's origins are closely tied to the struggle for freedom and democracy, as it took place in Berlin during the decades of division and Cold War. Veritas – Iustitia – Libertas or, in English, truth – justice – liberty. These are the three normative ideals of Freie Universität's founding motto. During the founding years of this university right after World War II, these were by no means just high-sounding or academic ideals, but also describing an urgent need and a plan for political action.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II, Berlin's traditional university found itself in the Eastern part of the city controlled by the Soviet Union.

Political and ideological pressures were rising, and they soon resulted in severe discrimination and suppression. And so, in response to these pressures, Freie Universität was founded in 1948 in the western part of the city not by a government decree or a decision of a ruler, but by students and professors who were calling for just that: a free university. Their simple-sounding appeal to the ideal of freedom had a very concrete meaning under the threatening circumstances, and it was the simplicity of this call that formed part of its force. Thus, the founding history of Freie Universität is also a lesson on how normative ideals can forcefully articulate the need for action and change.

There is one element that I need to add to complete the picture. A key reason why the founding story of Freie Universität was successful was the international support that the initiative of our founding students and professors received. This was our good fortune, for the support came both locally from the Western allies in Berlin, and from abroad, especially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 it is not surprising that one of the most memorable hours in this institution's history during the Cold War was the visit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John F. Kennedy in 1963, just two years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Berlin Wall and just a few months before his tragic assassination. Based on this founding history, Freie Universität has later seized opportunities to help other academic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internationally. As a recent example, let me just mention our activities in the network called “Scholars at Risk” which strives to offer safe havens for those scholars and researchers who face persecution in their home countries.

Today, Freie Universität is a full-scale research university with 11 faculties plus a joint medical faculty with Humboldt-University. Altogether, Freie Universität has more than 70 institutes and offers more than 150 programs of study. The fact that Dahlem is home to not just to Freie Universität, but also to several Max-Planck-Institutes and other federal research institutions, makes it into one of Germany largest and strongest locations for science and research.

To come to my last point: Today is joyous occasion also in respect to embracing the unknown. In March 2000 the late President KIM Dae-Jung chose the Freie Universität as a location for the proclamation of his “Berlin declaration”, which constituted the beginning of the sunshine policy. The same year he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recognition of his diplomatic approach to North Korea. 7 years later, in May 2007, Dr. Kim Dae-Jung returned to Berlin. For his lifetime achievements and his commitment to the freedom of Korea, the Freie Universität had chosen him to be the very first recipient of the international Freedom Award of Freie Universität. Today, almost ten years later, we live in times, in which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re connected by rapidly progressing advances in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One might think that by means of these advances we have gotten to know each other well enough to reduce prejudices and to lower fears of ‘otherness’. Yet, we are witness to a rising nationalism within global politics. In view of this developments and the danger they might bring to us,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o grow closer together and to open-mindedly learn from each other than to shy away from the unknown.

As a professor of German literature I would like to emphasize my point by pointing to Goethe:

“Glückliches Ereignis” - a joyous, also fortunate occasion - this is the title Goethe chose in 1817 for a short article in which he thinks back about his first longer encounter with Schiller. This encounter took place in 1794, in other words: 223 years ago, and it was, as we know, a point of origin for much more than just a rapprochement of two very different standpoints. Goethe and Schiller, at the beginning of their friendship, came from two very heterogeneous intellectual and also practical backgrounds. Sometimes, the knowledge of things that divide us is a good basis for finding common ground. And that opens up new perspectives on what connects us; and in so doing it will prepare the ground for a co-operation among friends; a cooperation in scholarship, culture and, simply, conversation.

Today, we have gathered to celebrate your start into a new life with an unknown future, but - surely enough - a very bright future. And I want to extend my cordial invitation to you to take up the chance to come to Freie Universität, to Berlin, a city that has seen division and unification. Dear students, I congratulate you again for becoming a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your future studies.

【붙임3: 입학식 축사(국문)】

존경하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님, 학생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먼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서울대학교와 입학식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및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입학식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의
미 있고 즐거움이 가득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 모인 신입생 여러분들이
한국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1946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과정
에서 서울대학교는 이를 실천적 지혜와 용기로 이끌어왔습니다.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학문
적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명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학식을 주관하시는 성낙인 총장님처럼, 저
역시 총장으로서 베를린자유대학의 입학식을 주관해 왔습니다. 저희 대학 입학식에서 독일
학생들의 얼굴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희망, 흥분 그리고 약간의 긴장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형성의 시기 중 하나입니
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해야 합니다. 서울대 안에 있
는 여러 단과대학과 대학원에서 개설한 강의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 내
연구소에서 실제 연구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오랜 파트너 기관
인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서울대학교와 베를린자유대학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더 기쁜 날입
니다. 독일, 그 중에서도 특히 베를린은 지난 20세기 후반 분단과 통일이라는 특수한 역사
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역사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은 그 역사의 현장에
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총장으로서 여러분께 간략히 저희 대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은 전 세계가 냉전으로 인해 수 십 년 동안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던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Veritas (진리) - Iustitia (정의)

- libertas (자유)가 베를린 자유대학의 설립 이념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였던 베를린 자유대학의 설립 초기에 이 세 가지 가치는 거창한 이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독일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를 움직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차대전 종식 이후, 베를린은 동서로 도시가 분할되었고, 동베를린에 위치한 전통이 유구한 대학들은 소련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치적, 이념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는 곧 심각한 수준의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1948년 베를린자유대학이라는 새로운 대학이, 반으로 쪼개진 베를린의 서쪽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베를린자유대학은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대학’, 그 자체를 부르짖는 학생들과 교수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중한 시대적 여건 하에서 이렇듯 간결하고 명료한 ‘자유’ 라는 이상향에 대한 호소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간결하고 명료했기 때문에 그 호소력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베를린자유대학의 설립과정에서 보듯 규범적 이상은 때론 추상적 구호에 그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베를린자유대학 설립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를린자유대학의 설립을 주도한 학생들과 교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베를린에 주재하던 서방 연합국과,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 2년만이자 암살되기 불과 몇 달 전인 1963년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베를린자유대학 방문을 그래서 동서 냉전 기간 중 이루어진 중대한 장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베를린 자유대학으로 하여금 세계의 여러 학술 기관과 학자들에게 도움과 기회를 주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위기에 처한 학자들(Scholars at Risk)” 이라는 네트워크 공동체 지원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국에서 여러 이유로 박해받고 탄압받는 학자와 연구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베를린자유대학은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11개 단과대학을 운영 중이며, 훔볼트 (Humboldt) 대학과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0개의 기관과 150개 이상의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를린자유대학이 위치한 다렘(Dahlem)지구

에는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막스-플랑크연구소(Max-Plank Institute), 독일 연방정부 산하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밀집해 있어 독일 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연구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입학식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3월 故김대중 前대통령은 베를린자유대학을 방문하여 햇볕 정책의 초안이 되었던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것이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7년 뒤인 2007년 5월, 김대중 前대통령은 베를린을 다시 방문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평생의 공로를 인정받아 베를린자유대학으로부터 ‘자유상’ (Freedom Award of Freie Universität)을 최초로 수상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기술의 발전, 특히 통신 분야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세계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연결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로 우리는 내심, ‘나와의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이 더 이상 없을 만큼,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정치에서 국가주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과 위험 속에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과 서로에게 배우고 가까워지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제 전공은 독일 문학인데 요. 이 자리에서 잠깐 괴테의 말을 빌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Glückliches Ereignis” - 기쁘고 복된 일 - 이는 괴테가 쉴러와 처음으로 오랜 대화를 나눈 후 1817년에 집필한 단편의 제목입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223년 전인 179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이 화해를 이루는 순간을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괴테와 쉴러가 처음 친분 관계를 맺을 당시만 해도 둘은 상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적 배경도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서로 간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곧 친구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장학금 지원에서부터 문화 교류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이러한 협력의 핵심은 대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또한 확실하고 충분히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분단과 통일을 모두 겪은 도시 베를린의 자유대학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무한한 건승을 빕니다.